

시지정 문화재(무형민속)

1995 년 6 월 26 일 지정

전승자: 오미야 신사 가구라 악부

하사마초 오미야 신사의 가구라

오미야 신사의 가구라는 야쓰의 혼고(나라시노시 야쓰)에서 전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.

가구라가 시작된 연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보존되어 있는 오랜 의상이나 상자에는 '분큐 3 년(1863)'이나 '안세이 6 년(1859)'의 글이 적혀 있어 에도시대 말기에는 이미 가구라가 봉납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.

가구라는 1 월 7 일의 나나쿠사(밤), 10 월 23 일의 예제(밤) 때 경내 가구라전에서 봉납된다. 가구라를 전승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지코(같은 씨족신을 모시는 사람들)로 구성된 오미야 신사 가구라 악부 사람들이다.

현재 봉납되고 있는 곡목은 다음의 12 개 춤이다.

①미코마이 춤, ②덴구(사루타히코), ③하치만타로(지노리), ④우스메, ⑤고카지(스미요시마이 춤), ⑥오키나, ⑦신메이(다네마키), ⑧기쓰네(덴코), ⑨진구 황후, ⑩훗토코, ⑪이비스사마(히루코), ⑫오니/쇼키(산진).

이 중에서 진구 황후는 시내에서는 오미야 신사에서만 공연되고 있는 곡목이다.

사용하는 악기와 연주자 인원은 큰북(보우치다이코 북) 1 명, 작은북(시메다이코 북) 1 명, 피리 3 명이다.

오랜 옛날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농업이 발달했던 하사마 지역에서 오곡풍요를 기원하고 풍작을 감사하면서 독자적인 형태로 전승되어 온 개성적인 가구라이다.

2017 년 3 월 후나바시시 교육위원회